

즐거웠다.

- 2) 元一漢 (H.D. Underwood, 現 延世大學校財團 常任理事)의 證言.
- 3) *Korea Mission Field* III, No. 11 (1907).
- 4) *Korea Mission Field* XI, No. 3 (1915), p. 232.
- 5) *Korea Mission Field*, VII. (1911), p. 3.
- 6) *Korea Mission Field*, XI. (1915), p. 232.
- 7) *Korean Magazine*, II. (1918), p. 548.
- 8) 寺內總독과 1911년 8월 23일자로 公布한 朝鮮教育法令을 뜻한다.
- 9) 高等普通學校의 數가 意外로 적은 데 반하여 商工學校의 수가 너무 많다. 그는 商工學校를 Industrial Schools라고 적고 있다.
- 10)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R.A. S. N. (1913), p. 23.
- 11) *Popular Astronomy*, 23. (1915), p. 6.
- 11) *Popular Astronomy* 24. (1917), p. 490.
- 13) *Ibid.*, 23 (1917), p. 209.
- 14) 백낙준 박사는 건강때문이었다고 *Korean Astronomy*의 소개문에 쓴 바 있다.
- 15) 眞理와 自由의 旗手들, 延世大出版部, 1982, p. 154.
- 16)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R.A.S. 26, (1936), p. 1.

日帝下の 科學報道

——東亞日報 論調를 중심으로——

전 漢陽大 玄 源 福

제 1 차大戰 이래 世界的으로 힘쓸기 시작한 「科學技術은 富國強兵의 源泉」이라는 思潮는 日本의 植民地로서 受難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刺戟을 주었다. 이리하여 民族言論은 實業家와 富豪들에게 工業 進出을 촉구하는 輿論을 조성했다. 예컨대 東亞日報(1921. 5. 15~17)는 3회에 걸친 連載社說 「工業立國을 論하노라」에서 우리 民族의 慘狀을 救하는 길은 產業(工業) 밖에 없으며 우리의 強대도 工業없이 한가닥 빛도 바랄 수 없다고 주장하고 富豪와 實業家들은 工業에 뜻을 두고 工業을 배운 사람과 손잡고 「工業의 朝鮮」이 되기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工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科學技術의 振興을 부추겨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서 社會의 科學風土를 造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1922년 12월 10일자 社說(朝鮮文化

史上으로 觀察한 安君의 飛行)에서 처음으로 「科學運動」을 제창하면서 安昌男의 故國訪問飛行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계기로 하여 科學運動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社說은 『어떤 시대나 民族을 막론하고 自然科學의 核子와 背景이 없는 啓蒙運動은 本質이 健全하지 못할 것은 과거의 歷史的 事實이 明示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22년 12월의 安昌男 故國訪問飛行은 우리나라 신문사행사로나 또는 科學啓蒙행사로서 가장 성공한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12월 10일의 제 1 회 비행에는 30만 서울시민 중 5만 인파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량진과 마포를 덮었으며 이 행사를 전후한 한달은 온 民族의 관심의 과녁이 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東亞日報社는 일반의 참여의식을 부추기기 위해 치밀하고 완벽한 보도계획을 밀고 나갔다. 1922년 11월 22일자 신문에서 社說(故國訪問大飛行에 對하야)과 安昌男의 傳記(空中勇士 安昌男)로 幕을 올린 카운트다운은 이 행사가 끝난 22년 12월 15일까지 23일간 이에 관련된 7회의 社說을 게재했고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3면 머리記事를 固守했다. 12월 10일인 당일은 社說(朝鮮文化史上으로 觀察한 安君의 飛行—科學運動의 促進을 望함) 解說(飛行機發達史觀) 獻詩(金剛號야—辛香山作) 외에도 3면은 온통 그날의 行事記事로 메웠다. 이밖에도 1면, 2면과 4면의 安昌男故國訪問大飛行祝賀廣告까지 포함하면 그날 發行紙面중 거의 3분의 2를 安昌男의 大飛行과 관련된 記事가 차지한 셈이다. 참고로 뉴욕 타임즈는 1962년 2월 21자 신문에서 최초로 軌道飛行을 한 美宇宙飛行士 존 글렌 2세 중령의 기사를 종 발행지면 92면중 8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다뤄 신문계에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었다.

東亞日報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보도계획은 이 행사에서 공전의 관중을 동원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飛行에 앞서 日本에서 釜山連絡船 景福丸을 타고 釜山에 上陸, 서울에 入京하는 동안 釜山·大邱·大田·平澤·水原·永登浦등 京釜線의 주요역마다 그를 歡迎하는 사람들로 메

우는 등 全國의인 歡迎무드를 자연스럽게 펼쳐 나갔으며 서울 南大門驛은 그를 맞는 수만의 환영인파로 人山人海를 이뤘다. 이 환영인파 중에는 서울의 徽文·中央·普成·中東·淑明·進明 등 私立男女高普學生 수천명을 비롯하여 天主教青年會, YMCA, 天道教青年會, 佛教青年會, 大倭教青年會 등 종교단체와 30개 사회단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5개 券畚의 女性들까지 수백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安昌男의 故國訪問飛行은 당시 科學技術의 精髓라고 생각했던 飛行機를 우리나라사람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實證함으로써 3·1운동 직후의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民族的 自負心を 다시 蘇生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東亞日報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나라 靑年들의 科學研究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社說(1922.12.10)에서『安君의 今般飛行이 我朝鮮靑年人士에게 一新轉機를 촉진케 하여야 할點은 非他다. 諸君靑年이 舉一致하여 必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飛行士가 되라 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일층 物質科學方面에 연구의 용의를 경주하여야 할 점이로다』고 주장했다.

安昌男飛行이 물고 온 熱風이 아직도 식기 전인 1923년 우리나라 科學界를 위해 몇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서울 시내 博物科 敎員들이 박물학 연구기관으로 朝鮮博物學會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목적은 自然界에 관한 知識普及과 初中等教育에 필요한 博物敎材를 研究하고 이를 위해 講演會와 展覽會를 여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金容瓏 등 당시 京城高等工業學校출신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科學知識普及과 工業常識 鼓吹機關으로 發明學會를 設立하는 움직임이 태동했다는 사실이다. 발명학회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30年代 우리나라 科學大衆化運動의 母體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朝鮮女子靑年會가 女性을 위한 科學講座를 新設했다. 또 東京留學生들로 조직된 科學文明普及會는 전국을 누비면서 科學思想보급을 위한 순회강연회를 가졌으며 이들은 아름다운 女性合唱團에게 科學宣傳歌를 부

르게 하여 많은 청중들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京城醫專 출신의 한국인 의사들의 모임인 京醫有隣會는 해마다 전국적인 保健계몽활동을 폈다.

그런데 당시 科學大衆化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印刷媒體였다. 日帝下에서는 우리나라 大衆이 읽을 만한 科學冊子는 거의 없었으며 20년대초 京城府立圖書館의 科學관계 장서는 모두 500部를 넘지 못했고 京城圖書館에는 科學에 관한 서적은 거의 없다시피했으나 그나마 도서관의 과학장서는 모두 일본서적들이었다.

그래서 日帝下에서 우리 민족이 접촉할 수 있는 科學知識은 거의가 우리의 大衆印刷媒體를 통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신문·잡지의 科學報導는 科學大衆化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20년대중반부터 「工友」(1925년), 「文明」(1925년), 「新發明」(1927년), 「科學」(1929년), 「白頭山」(1930년), 「科學朝鮮」(1933년) 등 科學誌들이 차례로 창간되었다. 이것은 일반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중에서 「文明」은 우리나라 科學專門誌의 호시로서 「西歐思想에 짓눌려 멸시되었던 우리의 傳統科學을 再照明하여 주체적인 우리 科學思想을 確立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少年科學誌인 「白頭山」은 종래의 전문적이며 어렵던 과학을 동화나 또는 역사물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꾸며 어린이들에게 과학사상을 보급하고 과학에 대한 꿈을 심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잡지의 체계는 菊版 150여페이지에 '사이언스 카드'라는 부록까지 붙여 고급모조지를 쓰고 많은 화보를 실은 호화로운 잡지였다.

日帝下 우리민족의 科學雜誌로서 가장 長壽(12년)를 누린 것은 1933년 6월 창간된 「科學朝鮮」이었다. 發明學會의 機關誌로 발족한 이 잡지는 당초 發明과 特許에 관한 記事로 大宗을 이루었으나 論壇에도 상당한 紙面을 할애하여 評論誌의 구실도 했다. 이것은 1934년 7월 科學大衆化事業을 맡고 나선 科學知識普及會에 移管

되었고 1935년 2월 續刊되면서 大衆科學誌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一般大衆誌인 「新東亞」가 1933년 5월 호를 「科學號」로 펴낸 것은 우리나라 雜誌史上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科學號」에서 특별기획물인 「五十年後의 世界」는 바로 1983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1980년대의 世界를 예측하면서 「耐水耐火의 無機質製衣服」인 오늘날의 특수섬유를 예측했고 「化學調合物的 新食物」인 合成食品, 「集團住宅빌딩」인 아파트의 등장을 예언했다. 이 기사가 비친 전자현미경·방사성치료법·유전자의 인공조작 등은 50년을 기다리지 않고 벌써 실현되었다. 또 미래의 육상 교통기관은 전기와 증유기관차가 주역이 될 것, 모노레일과 磁石車의 등장을 예언했고 80년대 「交通의 王者」는 항공기라고 비쳤다. 그러나 이 예측은 제트機의 출현은 미처 내다보지 못해 비행속도를 시속 500~600km로 못박았다.

東亞日報은 한정된 지면에 비해 科學解說記事에 대해서 언제나 많은 紙面을 배정했다. 예컨대 1922년 노벨物理學賞을 탄 아인슈타인에 관한 해설은 「아인슈타인의 相對性原理」는 6회, 「아인슈타인은 누구인가?」는 3회, 그리고 「相對論의 物理的原理」는 4회에 걸쳐 각각 連載되었으며 매회마다 제 1면의 5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23년에 들어와서 每日曜日 1면을 모두 一般科學知識記事에 할애하기 시작했다.

「新東亞」외에도 「東光」, 「別乾坤」, 「朝鮮之光」, 「三千里」, 「東明」, 「靑年」, 「新民」, 「新生」 등 일반종합지들도 오늘날의 종합잡지보다 더 많은 비중을 科學評論·解說·健康·生活科學등에 배려했으며 특히 26년에 창간한 「東光」은 그 편집방침의 하나를 「科學의 通俗化」에 두었고 31년 속간호에서 내건 강령의 하나를 「科學과 技術의 學得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別乾坤」은 26년 11월 창간호에서 「80만 년 후의 社會」라는 科學小說을 게재했고 「三千里」는 29년 6월 창간호에서 安在鴻의 「朝鮮에 큰 科學者가 나시 世界的으로 進出하자」는 논문을 실었으며 「新生」도 29년 新年號에서 文一平의

「科學頭腦와 文化魂을 찾자」는 논문을 게재하여 科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30代로 접어들면서 우리 民族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發明特許 및 實用新案의 登錄件數가 두드러지게 늘어났고 科學技術系 高等教育機關의 志望生 수도 늘어났다. 發明學會의 濟動도 活潑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活動範圍를 넓혀 科學大衆化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이들은 1934년 찰즈 다윈의 忌日을 「科學데이」로 설정하고 4월 19일을 전후한 科學週間중 대대적인 科學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의 實行委員에는 科學界뿐만 아니라 李仁, 呂運亨, 金炳魯, 金活蘭, 趙東植, 玄相允, 宋鎮禹, 李相協, 方應謨, 金性洙, 崔奎東, 俞億兼, 柳光烈, 異河潤 등 당시 우리나라 政界, 教育界, 財界, 文化界, 言論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行事는 汎社會의 行事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제 1회 「科學데이」행사가 뜻밖의 일반의 큰 호응을 얻게 되자 이 운동을 본격적인 大衆運動으로 전개하기 위해 科學知識普及會가 창립되었다.

曹晚植·宋鎮禹·方應謨·呂運亨·李相協·金性洙·金東元·朴承稷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李仁을 회장, 李勲求·趙東植·崔奎東·朱鍾宣·玄相允·尹日善·異河潤·玄東完·李軒求·朱曜翰 등을 普及委員으로 하며 李克魯·李春昊·安東赫·李甲秀·李萬珪·李采鎬·趙福成·崔允植 등을 研究委員으로 辛泰嶽·吳胤善·朴興植 등을 財政委員으로 선출한 科學知識普及會는 서울에 본부와 주요지방에 支會를 두는 전국적인 조직에 착수했다.

이 모임의 목적은 科學知識의 普及과 일반생활의 科學化, 그리고 增產을 돕기 위해 첫째, 과학도서의 편찬발간, 둘째, 학교의 자연과학도에 관한 조사, 세째, 科學大衆化방법에 관한 조사, 네째, 강연회·좌담회·실험회·이동과학 보급대·전람회·견학단 등의 행사, 다섯째, 과학활동사진의 촬영 및 상영, 여섯째, 화학표본의 제작·판매·취급대리, 일곱째, 연중행사인 「과학데이」의 실행, 여덟째, 통속과학잡지의 발행, 아홉째, 전면적인 문맹퇴치사업 등 광범위

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科學知識普及會는 발족후 1년만에 平壤·元山·信川·金泉·開城 등에 支部를 두게 되었다. 지방조직 결성에는 당시 東亞日報·朝鮮日報·朝鮮中央日報 등 민족언론의 역할이 컸다. 민족언론은 또 科學知識普及會의 주최로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大衆科學講演會를 후원하여 전국적인 科學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붐은 ‘科學데이’를 전후한 주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예컨대 1935년 4월 19일은 새벽부터 서울과 지방의 요소요소에서 小型 科學데이旗를 나눠 주어 자동차와 자전거에 달게 하고 수만장의 포스터와 수십만장의 傳單을 붙이거나 뿌려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낮 서울에서는 54대의 자동차가 「科學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勝利者다.」「한개의 試驗管은 全世界를 뒤집는다.」라는 표어와 科學데이旗를 달고 科學의 노래를 연주하는 少年軍樂隊를 앞세운 가운데 서울거리를 누볐다. 이날 저녁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科學데이式과 기념강연회는 개회전부터 초만원에 보인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科學大衆化運動에 대한 당시 언론의 태도는 東亞日報社長 古下 宋鎮禹가 제 1회 科學데이가 끝난뒤 發明學會長인 李仁에게 「내가 돈은 못대지만 科學普及運動에 紙面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얼마나 적극적이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제 2회 ‘科學데이’ 행사비용 892원 중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282원을 東亞日報가, 5분의 1에 가까운 176원을 朝鮮中央日報가 출연하여 결국 비용의 반은 언론기관이 지원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민족언론은 發明學會가 科學週間을 설정하고 科學大衆化運動을 전개하기로 결정

했을 때 이 行事를 계기로 더 높은 次元의 科學振興事業으로 展開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東亞日報는 社說(1934년 3월 5일, 제목: 科學데이會와 그 事業)에서 「이 先驅의운동이 성의 있게 진전되지만 한다면 全朝鮮의으로 적지 않은 충동을 줄 수 있을 것인즉 지방에서도 이 사업에 和應하는 단체가 뒤를 이어 일어나 우리 자신의 지식적 결함을 어느 정도 채워 줄줄 믿는다.」고 말하여 全國的인 조직의 결성을 촉구했다.

朝鮮日報는 社說(1934년 3월 5일, 제목: 科學과 朝鮮)에서 「科學데이를 기념 또는 선전함으로써 自足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基礎삼아 一步를 내켜서 天才를 배양하는 獎學機關을 하나 만들어 自然科學의 研究와 그밖의 有用한 發明에 대해 마땅히 물자으로써 응원과 원조를 아끼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말하면서 연구진흥기관의 설립을 주장했다.

한편 科學知識普及會를 중심으로 한 科學界와 教育界에서는 科學技術研究機關을 설립하여 研究와 科學者 養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했으며 東亞日報는 당시 日本理化學研究所에 있던 金良稷의 「理化學研究所設立」이라는 論文을 연재하는 한편 李承雨의 「科學博物館의 設立을 提唱함」이라는 특별논문도 연재하며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창 열기를 더해가던 30年代의 科學化運動은 日本警察이 1938년 ‘科學데이’에 이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던 金容瓚을 投獄한 것을 계기로 노골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夭折하고 말았다.